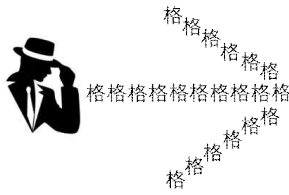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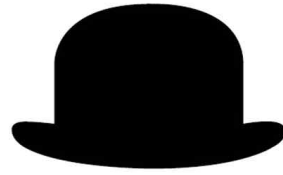




크리스찬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품격



자 격 품 격



DIGNITY



이현도선교사
본지 발행인 / 한선협회장

좋은 땅을 가리켜 명당(明堂)이라 부르고, 유명한 장소는 명소(名所)라고 부릅니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진귀한 물건은 명품(名品)이라 부르고 가치를 높이 매깁니다. 판소리나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은 명창(名唱), 춤을 잘 추면 명무(名舞)라 하고, 유명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명장(名匠)이라 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면 명인(名人)이라 불러줍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드러나면 유명한 사람, 명성을 가진 이가 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름 두석자씩은 가지고 있는 다 유명인입니다. 다만 얼마큼 알려져 있고, 얼마큼 인정받느냐의 차이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즉 이름은 있지만 유명하지는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한 자들 중에서 명망이 깊고 인품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작은 길을 걸었던 사람속에 선교사들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선교사는 자격으로 되는 것일까요? 자격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격은 시간이 가도 얻지 못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얻지 못할 수 있고, 연륜이 쌓여도 끝내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를 말합니다. 품격을 뜻하는 영어 단어 dignity의 라틴어 어원은 dignitas인데 높은 정치적·사회적 지위 및 그에 따른 도적적 품성의 소유를 가리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인 키케로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때 이 dignitas라는 말을 적용했습니다. 참다운 사람됨이야말로 품격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격, 신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품격을 중요시해왔습니다. 자격은 누구나 갖추 수 있겠지만 품격은 아무나 갖추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품격 없는 자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은 갖추었지만 품격이 갖추지지 않는 많은 지도자나 유명인들의 한계를 수없이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품격은 있는데 자격이 없다고 비난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품격은 자격 이상의 자격이고, 자격 중의 최고의 자격이 품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어떤 격(格)보다도 최고의 격(格)은 역시 품격(品格)일 것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이름값 못하다는 말은 자격은 있지만 품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은 있지만 품격이 모자라 그 이름과 직책에 손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집단과 조직까지 손해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라이센스)보다는 품격(품위, 인품)이 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는 것은 만국 공통의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가와기타 요시노리는 그의 유명한 책 『나이에 밀리지 않고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8가지 키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품격, 의리, 인정, 수치심, 향학열, 부모의 마음, 노파심, 꿈 - 이 그것이었습니다. 품위 있는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요소로 품격을 뽑은 그의 견해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침뱃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가시채로 썩어진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웃은 입혔다가 벗겨졌다가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군병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중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현장을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탄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 27장),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눅 23장)”

성공의 최고 경지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존경과 찬사라 생각합니다. 체포되어 형장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보여준 품격이 어떤 것이었길래 사형을 집행했던 현장의 지휘관과 군사들에게서조차 이런 고백을 받아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자라는 연수(年數)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자람이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의 자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이러저러한 기록들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도록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참으며, 날마다 겸허했던 초대 선교사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기독교의 품격이 아니었을까요? 기독교인의 품격은 역시 신의 성품(聖品)이 덧입혀졌을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격, 인격, 성격(聖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고급스런 품격을 지닌 거룩한 주님의 종(ambassador)들이라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선교사라는 이름보다도, 기독교적인 각종의 호칭보다도 품격과 품위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런지요? 큰 일을 했다는 칭찬보다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감동으로 전파되는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간다 한인선교사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미션네트워크'가 벌써 3호가 되었습니다. 계간지로 3개월에 한번 나오는 소식지라 좀 더 자주 나올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분기에 한번 발행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월하고 행복하게 진행하며 우간다 한인 선교사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듯한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남이 행복한 것을 절대 못 봐주는 어느 후진인들처럼 이 신문은 어느 개인의 신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넓게 열린 마음이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늘 그렇듯이 비판은 많고 협조는 빈약합니다. 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소인들의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묵묵히 숨어있는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장으로서 활용되면 더욱 좋겠다는 소망은 여전히 이 신문의 기본 취지입니다. 열린 사람들의 열린 마음으로 열린 글들이 열린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 여겨집니다.

누가 뭐래도 시간은 흘러가듯 그래도 우리의 소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품격있는 우리 한선협과 미션 네트워크가 되기를 소망해 보며, 이 선교 소식지를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간다 한인 선교사 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공고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우간다 한인 선교사 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2:00
- 장 소 : 우간다한인교회
- 기 타 : 아래와 같음

- 금번 총회는 COVID-19로인한 방역 수칙 준수와 참석자 안전을 위해 모임 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회무 보고, 임원선출, 신입회원 허입에 관한 내용만 논의하고자 합니다.
- 금번 총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11월 27일(토) 까지 첨부된 "1.1총회 안건 양식"에 작성하여 메일(ugandakma@gmail.com)로 안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첨부된 "1.2정기총회 위임장"

을 작성하여 한선협 메일 또는 총무(박영찬선교사) 카카오톡(loveuganda)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협 가입을 원하는 주변 선교사에게 총회 개최 전 첨부된 "1.3 한선협 가입 신청서" 제출과 총회 참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 당일 식사(도시락) 준비를 위해 참석 가능한 분은 11월 27일(토)까지 총무 카카오톡으로 통보(동반 가족 및 자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한인 선교사 협회 회장 이현도

인사

안녕하십니까, 선교사 여러분!
올해 초 2.19일자로 주우간다
대사관에 신규 부임한 하지영 영
사입니다.



하지영 영사

지난 늦가을 10월 무렵 재외공
관 부임 신청 공고를 보고 문득
아프리카 땅을 밟고 싶다는 생각
에 무작정 지원서를 내었던 것이
운명처럼 저를 이 곳 우간다로 이끌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무지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에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속속들이 구분할 만한 일말의 지식과
식견도 없이 그저 피상적인 이미지에만 의존해서 부임
신청을 접수했고, 그래서일까요, 이 곳에 온 이후로 날마
다 전에 없던 새로운 사건, 경험, 사람들과의 만남에 늘
긴장과 설레임의 연속입니다.

한선협 신문 창간호를 제가 처음으로 받아든 날은 이
곳 우간다에 부임한지 만 2개월이 지날때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영사로서 우간다내 우리 교민들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계시는 선교사분들에 대해, 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에 구석구석 꼼꼼히 일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리고 2호 신문에는 공모를 통해 우리 대사관 영사업무
진행 과정에서 통역 지원을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는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삼 한선협
임원진 여러분들과 우리 대사관을 위해 조력을 제공하시
고자 지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최근 선교사님들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중환자실
에 입원하시거나 심지어 사망을 하시는 가슴아픈 사례도
있었고, 락다운이 장기화되고 현지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크고 작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 이송부
터 입원 후 식사 준비까지 마치 한 가족처럼 팔을 걷어
부치고 적극 헌신하시는 선교사분들을 보노라면 우리 교
민 사회의 무한한 힘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대사관과 교민 사회가 합심한다면, 조만간 이
어려운 시국을 무사히 극복하고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
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조금만 더 힘
을 내시고, 그 과정에서 한선협 신문이 지금처럼 교민
사회의 유용한 소식지로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
실히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도 소중한 우리 교민
사회의 일원이신 선교사분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늘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우간다대사관 영사 하지영 배상

지나간 행사들

1.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

지난 여름 코로나에 걸렸던 박모, 허모 선교사님을 위한
모금이 비공식적 한선협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많은 선교사님
들이 이에 동참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총 모금
액 : 26,500,000실링)

2. 박모레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온라인 기도회 개최

한선협 회원은 아니었지만 한인 선교사라는 동포애로 쾌유
와 회복을 위한 한인선교사님들의 온라인(Zoom) 기도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3. 쿠미대학교 이사장배 테니스 대회

우간다 동부지역에 소재한 쿠미대학교의 김의환 이사장배
테니스 대회가 2021년 5월 15일~16일에 걸쳐 쿠미대학교 테니
스장에서 복식게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공동우승 : 이현도, 정성철 팀, 정태현 · 박찬조 팀)

『책소개』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7가지

1. 품격있는 사람은 소명 의식이 다르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찾
고 달려가라. - 미국 최초 여성각료, 프랜시스 퍼킨스 -
2. 품격있는 사람은 방대한 독서량부터 다르다.
마치 자신의 모든 삶이 걸린 것처럼 책을 읽어라. - 빈민들의 어
머니, 도러시 데이 -
3. 품격있는 사람에겐 시련도 선물이다.
일상적인 선물이 즐거움을 안겨준다면 시련이라는 선물은 인격을
ঢ়게 해준다. - 빈민들의 어머니, 도러시 데이 -
4. 품격있는 사람은 인내한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서 너그러운 연민이나 동정심을 지닌 사람으
로 성장하라. - 유년 시절의 애정결핍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
킨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 -
5. 품격있는 사람은 타인을, 세상을 이해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
를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담 백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새뮤얼 존슨 -
6. 품격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
스스로를 낮춘 후에야 비로소 내가 높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자신을 낮춘 신학자이자 주교, 아우구스티누스 -
7. 품격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져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인생을 확장시킨다. 늘 책과 사상과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어라. -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 -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멋지고, 세련되고, 교양있고, 이
름나고, 인맥있고, 유행에 민감하다...고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당신은 이미 품격 있
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라고
“Big me” 의 시대에 “Little me”의 가치를 일깨우라고
성공을 향해 무한 질주하는 삶이 아닌 성장을 향한 스토리들을 가
득 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명품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품격있는 인간이 되기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생각
에 품격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내면부터 품격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면에 이어서

주변 남수단과 케냐에 살고있는 부족들이 워낙 포악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를 세우
고 전도해야 할 지역이 여전히 많은 지역이다. 사베이부족
초등학교 교사들은 정부학교에 발령을 받아 카봉지역까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이 이곳에서 10여년
정도 생활하면서 카라모중 언어를 익혔고 팀 미션에 함께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사베이 부족 교사들을 통해서 카봉지역 초등
학교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미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
다.

3.6 미션 성장학교

지난 15년간 목회자 훈련을 하기 위해 매주 마다 일정
을 세우고 각 센터들을 방문해서 목회자 훈련을 진행하였
다. 먼 지역은 캄초라에서부터 100km 거리에 위치한 나말
루 지역이고 가까운 지역은 캄초라 근교의 10km 거리에
있는 비닌 센터이다. 목회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사역은 점점 넓어져서 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기만 하여 일
일이 각 센터를 방문하여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시론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시론 교회 역시 함석만 었은
흙집으로 된 예배당이었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서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잠도 자면서 목회자 훈련을 진
행하였다.

목회자 훈련을 함께 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성경 친구
약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이 몇 명 밖에 없었다. 중고등
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가진 목회자도 몇명 되지 않은 상황
에서 어려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선교사 혼자서 다양한 분야의 신학을 전부 가르친다
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한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
는 모든민족신학교(All Nations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에서 P.T.C(Pastoral Training Course)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공
부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민족 신학교는 기
꺼이 목회자들에게 강사를 보내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
록 도와주었다.

- 1) 목회자 집중 훈련과정 P.T.C (Pastoral Training Course)

임원 칼럼

죽음에 대하여

이종숙회계/영성위원장

2021년을 시작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1월 초부터 여느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
엇인가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 압박에 휩쓸려 왔었습니다. 전보다
사뭇 달라진 듯한 환경과 분위기를 속에서 여러 복잡한 심정으로
시작한 2021년이었습니다. 무엇이? 왜? 그토록 우리를 다르게 만
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소식이 우리의 현실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선협 공유 정보망을 통해
서도 전보다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죽음’ 의 소식인 것 같습
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는다는 것’ 그것은 익숙한 단어이며 또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장 많이 떠 올리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
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
어지는 주제이기도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 제물이 되신(갈3:13)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
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안에서 성숙으로 가는 삶의 출발점이 되
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은 바로 기도의 출발인 것이라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 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혔으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
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
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
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고백
하는 우리는 살아 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 같으며 죽은 자 같지
만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라는 고백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임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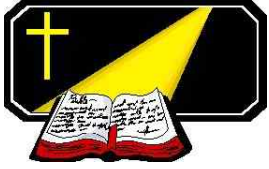
가장 가까이 있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미움도 슬픔도 같이
나누었던 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그 누구는 하나님의 말
씀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분들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죽
음이라는 여행의 출발을 하신 분들이며 아직 살아있는 누구는 죽
음이라는 여행을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14년 전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카톡 메세지를 보내시다가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이
송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린 후 집
으로 돌아와 가족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던 중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아지랑이처럼 제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순간 ‘그 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에 전화벨
이 울렸습니다. 사모님께서 “ 이제 금방 숨을 거두셨어요.” 처음으
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기쁨이며 감사며
그래서 제게 알려 주시고 가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혹이라도 위로
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
는 우리 한선협의 모든 회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확신에
차 있는 복된 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모든민족신학교 강사들이 한 달에 한 주간 캄초라에 방
문하여 신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합숙하며 목
회자들을 가르쳤다. 신학교 한 학기 교육 과정을 1년으로
개편하여 진행했다. 목회자들은 한 주에 한 과목씩 1년간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모든민족신학교 한 학기를 다닌
것으로 인정해주었다. 3년의 신학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목
회자들은 미션 성장학교 강사로 세워 팀 미션에 참여하는
교회의 리더십 훈련과 목회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 미션 성장학교(Growing Together Mission School)
목회자 훈련 과정과 모든 민족 신학교의 PTC 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목회자들 중 23명의 목회자를 강사로 세
워 각 교회 성도들에게 현지어와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게
하였다. 현재까지 미션 성장학교는 5년째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안식년을 위해 우간다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강
사로 선정된 목회자들은 꾸준히 미션 성장학교를 통해서
각 교회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미션 성장학교는
교회 리더십 훈련뿐만 아니라 청소년 훈련과 주일학교 교
사 훈련, 사모 학교, 특별 세미나(외부강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한국에서 잠시 머무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으로 탄 엘리베이터에서 아침에 학교에 가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건넨 말은 “학교 가니?”라고 했는데,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학교 일찍 가네? 공부 힘들지?”라고 했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말없이 내렸습니다. 또 다른 날 젊은 청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역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네..”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내 눈으로 바라본 한국은 내가 살아온 우간다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하니, ‘요즈음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인사를 해도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대꾸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는 답니다. 23년 동안 참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입니다.

흔히 이웃이라 하면 영어로 “Neighborhood 혹은 Vicinity”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이웃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이웃이라면 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하루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즉시 신 6:5절과 레 19:18절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 질문은 그에게 너무 쉬웠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정답 속에 ‘이웃’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생을 설명하는 것에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율법 학자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목적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학자에게 이웃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줍니다. 본인은 자신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의 이웃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를 주십니다.

이웃은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보건대 영생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를 나온 우리 선교사들, 혹은 이 우간다에 사업이든, 사역이든 일을 하기 위해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교대상이요 전도 대상인 것입니다.

이 이웃들이 우리와 영생을 하여야 할 사람들이라면 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1.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학자는 하나님을 참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김신환 선교사

본문 : 누가복음 10장 : 25~37



김신환선교사

2.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Action을 취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를 주님께서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앎과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하고 삶으로도 그것들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어봐도 이 내용이 분리된 사실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심볼로 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위해 이 둘을 실천하려 오신 예수님이 달림으로서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역지에 오면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그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이웃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사랑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할 텐데, 선교사 개인의 이름이 남음은 바로 이 수평적인 이웃사랑이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기둥에 묶여 있지 않음으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우간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강력한 진리가 받치고 있다면,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늘 드높여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이웃 사랑은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가까이 가야하는 것,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야 하고, 싸매고, 그 부상당한 이웃을 나귀에 들어 올려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3-34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행동(Action)입니다. 그 Action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웃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론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 무언의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사랑이라는 명목적 표어를 걸어 놓고, 자신은 그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그 율법 학자가 내 자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갈길로만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놓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세상은 교

회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그동안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 답시고, 자신의 교회 이름을 적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값싼 예수쟁이들의 전도요 선교로 인식되어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더욱 외면하고 있음을 볼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면 그들은 우리가 예수쟁이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르게 하라’는 그것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아는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낮추어보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아니면 우리의 선교사무실로 끌어와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히 외면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그대로 가서 너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모든 것이 내게 초점이 맞추어 져 있기에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을 하늘의 것에 고정하면 세상의 것들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서 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세상에 노출되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 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나만의 철옹성을 쌓고, 내가 필요한 대로 이웃들을 이용하면 결국 이웃이 우리를 외면해버립니다. 저는 선교현장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곳 우간다에 온 이유는 제자를 삼으로 온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된 우리의 삶속에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결신자를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루어 보건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강력한 자기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전도가 극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간다에 있는 우리가 행해야 할 바로 그 행동입니다. 주님사랑, 우리 형제 자매 사랑, 그것이 선교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 본 설교는 미션네트워크 4호지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게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믿음을 보이라』

한희석 선교사



한희석 선교사

본문 : 누가복음 17장 : 11~19

‘헛셀 포드’ 목사님의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이야기를 잠시 들려 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 허덕거리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참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새야, 아마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이 이야기는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열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힘든 인생을 바라보며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베레아 사역(14-17장)을 마치시고, 다시금 유대 지방을 방문하셔서 수난(19:28-23:56)을 맞이하시기까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전도하신 기사입니다. 비록 본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나사로를 살려주시고(요11:1-44),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오늘 본문도 이런 소문들과 무관치 않으리라 봅니다. 한편 22-37절에 예수님 자신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수난에 대한 세번째 예언(눅18:31-34)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수난을 당하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음을 암시하며, 예수님의 최종 여행지가 예루살렘이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 주신 경우는 비록 앞에서도 한 차례 있긴 하지만(눅5:12-16) 본 사건은 사복음서 중 오직 본서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예수로부터 다같이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였을 뿐, 나머지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감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을 ‘몸을 보이라’ 대신 ‘믿음을 보이라’로 대신해 보았습니다.

처음 열 명의 문둥병자가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소리칠 때,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때는 아직 그들의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

다. 래서 믿음의 주체인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 보이는지 예수님은 궁금하셨으리라 봅니다. 몸과 믿음은 다른 의미이지만, 본문에서는 병든 몸이 믿음으로 치료 되어져야 할 부분이기에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을 이루기 위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 이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이루는 몇 가지 요소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12,13).

“소리를 높여 -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열 명의 간절한 문둥병자의 외침은 그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특이한 행동도 없으시고 그 열 명의 병자들에게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에 대해 듣고 본 대로 나를 믿는다면, 나의 말을 순종함으로 믿으라’고 말이죠. 병자들은 즉각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병고침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 속에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둥병에 걸린 자는, 병이 발병했을 때와 완전히 병이 치유되었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나은 것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레14:1-9). 그러나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거나 아니면 ‘깨끗함을 받으라’는 한 마디 말을 하시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작정 “가서 -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일종의 시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에 대하여 묵묵히 순종함으로 길 가는 도중, 즉 순종하는 과정에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그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신앙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믿음안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14-16).

본문 16, 17절에 보면, 본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치 아니하였습다(요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병으로 인해 서로 불행을 같이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순종을 통해 깨끗함을 받은 열 사람 중 아홉은 가버렸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것이고, 전통과 율법에 의한 판에 박힌 감사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때 그 분께 감사를 표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보임으로 병고침과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열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감사의 믿음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행위는 순종하여 치료받는 믿음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큼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17-19)

17, 18절에 예수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고 물으시는 것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의 병이, 나를 믿고 따름으로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치료한지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이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사람으로 인해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 주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함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

치 못함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절에 이방인은 믿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깨닫았으며 그 믿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참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통해 완전한 믿음(구원)이 무엇인지 선보임에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그 같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는, 그 분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치 않았고,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알았던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옮겨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4:14-30, 마 8:11-13,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의 관계).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며,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하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궁극적인 요소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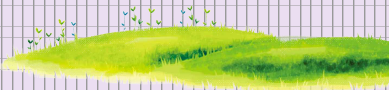
온전한 믿음은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며, 보여주기 위한 믿음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본문은 병자가 진정한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 외에, 사죄와 구원의 은총까지 더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은 선택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선협 선교신문인 미션네트워크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 선교사님 : 500,000 실링.





나의 선교지 이야기

캡초라 최정호 선교사

1. 팀 미션(The Evangelical Africa Mission)의 설립 배경

2007년 1월 캡초라 지역에 처음 상주하는 외국인 선교사로 필자가족 외에 다른 외국인은 거주하지 않았다. 필자는 캡초라의 중심 타운이 아닌 외곽지역 교회들의 목회자들에게 신앙과 신학 훈련을 시작했다. 사베이 부족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훈련을 하던 중에 필자는 카라모종 부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옐콘산을 중심으로 산 아래부터 위까지 흩어져 살던 사베이 부족은 카라모종 부족의 침략을 피해 산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2007년 필자가 처음 사베이 부족이 살고 있는 캡초라 지역에서 카라모종 부족이 살고있는 나카피리피릿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민가는 한집도 없었고 군데군데 군인들 부대만 위치하고 있었다.

1) 목회자들의 갈등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자니 고통스럽게 죽어간 부모 형제가 떠올랐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복음이 이전 년 전에 예수가 죽임을 당할 때 끝나버린 죽은 복음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2) 목회자들의 순종

필자는 사베이 부족 목회자들에게 카라모종 부족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권했다. 당시 목회자 훈련에 참석했던 130명의 목회자들 중에 카라모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응답한 목회자는 6명이었다. 목회자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하였다.

3) 2007년 8월 카라모종 부족 첫 전도

우기가 시작되어 도로는 온통 물에 잠겼고 카라모종 부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목회자들은 심시일반으로 감자를 가져왔다. 사베이 부족이 살고 있는 캡초라에서 카라모종 부족이 살고있는 나카피리피릿 지역까지는 100km 거리다.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7개의 군인 초소를 만났고 초소를 지나기 위해서는 모두 차에서 내리고 군인들이 단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찢어보았다. 그들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며 도대체 카라모종 부족이 사는 지역을 왜 가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러 간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은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죽어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도망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도망 갔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카피리피릿 지역 초입에 있는 카이쿠 지역 300명이 넘는 카라모종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카이쿠교회(Kaiku)’가 세워졌다.

카라모종 선교에 대한 증인들이 생기게 되자 함께 미션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필자는 카라모종 미션에 대한 팀 미션의 몇 가지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이 미션은 어느 교단이나 개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초교파로 함께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명의 용사가 되자. 함께 복음을 전하지만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이름도 내걸지 않은 교회들의 연합체로 복음을 전한다.

세 번째는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들은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립 자전 자치를 할 수 있는 성장을 하면 교회 성도들의 결정에 따라 원하는 교단에 등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함께 성장하자(Growing Together).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선교사나 목사, 전도사, 집사 등의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을 지

역별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섬김이들을 선발했다. 이들의 호칭은 섬김이(Servant)이다. 이 섬김이들의 모임에서 각자 분과를 나누고 다른 목회자들과의 연락과 중요 의제에 대한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의사 진행과 발언권을 갖는다.

이러한 방침들을 가지고 필자와 현지 동역자들은 이름없이 빛도 없이 교단과 교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카라모종 부족과 사베이 부족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미션에 함께 참여한 교단은 BOC(Body of Christ), PCM(Perfection Church and Ministry), Miracle Center, Glorious, PAG, COU Church of Uganda), Presbyterian 등이다.

2. 팀 미션의 구성

팀 미션은 각 지역 목회자들과 지역별로 목회자들을 섬기는 3명의 섬김이(미션 섬김이, 클래스 섬김이, 서기 섬김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회자 훈련이나 카라모자 선교 미션에는 각 지역의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각 미션 센터의 역할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목회자 훈련을 위한 모임이며, 카라모자 미션을 위한 동원을 각 미션 센터 별로 진행하여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면서 지역에 복음화에도 큰 역할을 감당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지역을 먼저 복음화하고 힘을 결집하여 카라모자와 포콧에 복음을 들고 가는 헌신을 계속하고 있다.

2.1 피수아(Pisua) 미션 센터

필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피수아 지역은 목회자 훈련을 처음 시작한 곳으로, 캡초라 타운에서 약 20km를 산길을 올라가는 해발 2,700m에 위치한 미션 센터다. 이곳 산동네는 땅이 비옥하여 감자와 옥수수가 주요 생산물로서 카라모자 미션을 위해 선교 헌물로 낼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부지런히 헌신하는 선교 열정이 많은 지역이다.

2.2 비닌(Binyiny) 미션 센터

비닌 센터는 캡초라 선교 역사 가운데 일찍이 복음이 전해진 곳 중 한 곳이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고등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공무원 등으로 일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이들이다. 교회 사역에도 열심이 있어서 팀 미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바람직한 모교회와 지교회 역할을 보여주는 곳으로 지금도 꾸준히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지역이다.

2.3 시피(Sipi) 미션 센터

일찍이 사베이 칼리지(Sebei College)를 통해서 사베이 부족 선교 역사가 시작된 지역이다. 이곳은 커피 농사와 맛도케 농사를 많이 짓는 모슬렘들이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곳이다. PCM(Perfect Church Ministry) 교단의 활동이 왕성한 곳으로, 팀 미션 멤버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며 이제는 활동을 주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2.4 부코와(Bukwo) 미션 센터

우간다와 케냐 국경 지역으로 주로 옥수수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를 빼앗아 가기 위한 포콧 부족의 약탈과 살인, 방화가 심했던 곳으로,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죽고 죽이는 일들이 흔하게 발생했을 만한 지역이다. 케냐 국경 지역에 있어 케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부코와 센터에서 함께 사역했던 첼코리아 가족을 포콧 부족이 살고 있는 카리타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2.5 나말루 미션 센터

나말루 미션 센터는 카라모종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센터로 캡초라와는 기후와 환경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카라모종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황량한 광야이지만 나말루 센터가 위치한 이지역은 3천미터가 넘는 카담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서 년중 벼농사가 가능한 늪지가 형성되어 있다.

3. 팀 미션 사역 (TEAM Mission Ministry)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팀 사역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설립 팀을 구성해서 보냈는데 갈등과 분열이 생겨 팀이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갈등을 경험하는 집단들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 토착교회 설립 방법의 변화가 필요했다.

3.1 목회자 훈련

우간다 동북부에 위치한 캡초라에서 13명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것으로 우간다 캡초라 지역 사역이 시작되었다. 목회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필자의 선교사역은 목회자들을 목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지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변화된 목회자에 의해 그가 속한 지역에 맞게 복음주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면 복음의 열매를 재생산하여 지역이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회자 훈련의 목표는 바로 에베소서4장 15-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함께 자라가자(Growing together into Christ)이다.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해보고 성경의 깊은 지식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전도하는 훈련과 성경 암송 훈련, 아멘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하며, 소명의식이 거의 없던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라는 소명의식이 생긴다. 이러한 훈련으로, 목회자들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을 삼람 하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목회자 훈련은 15년동안 진행이 되면서 캡초라에 거주하는 사베이 부족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웃한 바기수, 까라모종, 포콧 부족들까지 전도하여 5개 미션 센터 100여명의 목회자들이 훈련중에 있다. 각 지역 중심센터에서 열린던 목회자 훈련은 수도 캄팔라에 있는 신학교와 연계하여 집중과정(Intensive course)코스를 통해 좀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3.2 미전도 종족 선교

우간다에는 캡초라의 이웃 부족이면서 까라모종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들은 전사라고 불리며 약 90만명 이상이 우간다와 케냐, 수단 접경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목민이다.

먼저 목회자 훈련을 시작한 사베이 부족 목회자들과 함께 사베이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는 까라모종 부족을 2007년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여 지난 15년간 까라모종 부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교회를 개척 및 설립하게 되었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카라모종 형제들 스스로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까라모종 부족 안에 교회가 생기면서 예배를 인도할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기로 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고, 훈련받은 청년들을 각 교회로 파송했다.

셋째는 삶의 변화이다. 까라모종 부족의 지역에는 외국에서 많은 원조가 들어오고 있

는데, 오랜 식민역사와 척박한 자연환경, 그리고 계속되는 원조는 까라모종은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생활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3.3 현지 교회를 선교 자원화

목회자 훈련으로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변화하면서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베이 부족에게는 원수였고, 복음을 몰라서 반복된 악행을 계속하는 까라모종 부족에게 사베이 부족과 함께 가서 전도하고 예배당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까라모종을 향해 나아가갈 때 이제에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원하여 사역에 동참한다.

3.4 예배당 건축

까라모종 부족중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기니 주일이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 나무 그늘은 비가 오거나 너무 뜨거운 건기에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선교사인 필자에게는 이상향이 있었는데 네비우스 박사의 자립, 자치, 자전의 원칙이었다. 필자는 이 자립, 자전, 자치를 아프리카 교회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던 중이었다.

필자는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카라모종 교회 성도들을 모아 초원에 있는 풀을 베어 말렸다. 사베이 부족 목회자들은 예배당에 기둥을 삼을 나무를 베어 세우고, 풀로 지붕을 얹은 예배당이 까라모종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흰개미가 많아서 풀과 나무를 여지없이 갉아서 먹어치우는데 예배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배당 건축 후 1-2년이 지나자 개미들이 갉아먹어서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예배당을 보며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움직이셨고 무너져버린 풀로 된 지붕을 치우고 합석지붕으로 바꾸어 주셨다.

3.5 선교사 파송

1) 포콧 지역에 선교사 파송

2010년 10월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선교사는 그동안 목회자 훈련을 함께한 사베이 부족 출신 목회자로 자신들의 원수인 포콧 부족을 향해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 목회자 훈련을 받은 100여명의 목회자들과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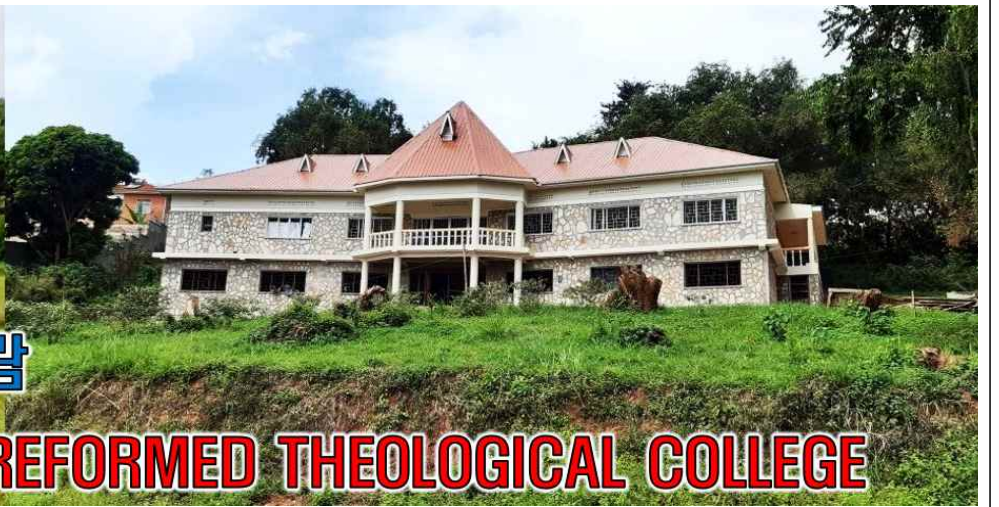
첼코리아 선교사는 현재 포콧 부족 땅인 카리타 지역에 마련한 25에이커의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 반 사막 기후의 열악한 환경에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농업과 임업, 봉제기술 교육 학교를 세우고, 포콧 부족을 복음화 할 수 있는 목회자 훈련 센터와 공동 숙소가 건축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노동하고 하루의 삶과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드리며 사역하고 있다.

2) 카라모자 카봉지역에 선교사 파송

2020년 5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감 속에 팬데믹 상황으로 봉쇄령을 선포하고 우간다 역시 봉쇄령을 실행하던 때에 우리는 지방정부의 치안 담당관의 허락을 얻어 카봉 지역에서 데이빗과 브리실라 부부를 파송했다. 브리실라는 사베이 부족이지만, 데이빗은 카봉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서 카봉 지역 선교사로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카봉 지역은 남수단과 케냐 국경으로 우간다 동북쪽으로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선교 전략 차원에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미션 센터를 세웠는데, 카봉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베이 부족 초등학교 교사들의 재충전과 선교 훈련 장소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카봉 디스트릭은 인구가 8만명 정도 되는데 타운에 있는 모여있는 6개 교회가 전부이다.

☞2면에서 계속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와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들어가는 말

27년의 학교 역사와 함께 한 울창한 소나무 숲과 Palm tree들로 둘러싸인 우간다 개혁신학의 보루인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은 동아프리카 공동체와 교회들을 이끌어갈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배상호, 박숙경 선교사에 의해 1994년 1월 31일 시작되었습니다. 우간다와 케냐, 남수단, DR Congo,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를 아우르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고 동아프리카 복음화와 동아프리카 교회의 선교 역량을 재고하는 일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도 급속하게 팽창하는 이슬람의 포교와 영향력에 대처하면서 우간다를 선교 전략적 요충지로 만드는 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 RTC(Reformed Theological College)는 영성훈련과 더불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이며 선교적인 신학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계발과 섬기는 리더십을 구비한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미 860여 RTC 졸업생들은 우간다 뿐 아니라 케냐, 르완다, 부룬디, 콩고,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지역 교회를 세우고 교단과 사회의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TC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와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드는 특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아프리카를 이끌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및 신학자들, 교사들, 음악인들을 양성하는 종합적 교육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은 우간다와 아프리카 교회를 선도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것 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미래 아프리카를 이끌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영성 훈련

RTC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매마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을 지향합니다. 신학과 뿐 아니라 유아교육과와 예배음악과 학생들의 영성 계발과 향상을 위한 영성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새벽기도

새벽 5:30분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는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입니다. 학과 공부로 학생들이 피곤할 때도 많지만 2년 동안의 새벽 기도회는 학생들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시간들입니다. 새벽기도에 익숙치 않았던 학생들도 새벽기도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믿음의 체험과 영성이 강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새벽기도는 동문들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학교생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채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40분에 시작되는 RTC 채플 역시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채플 설교는 월요일은 교장, 화요일은 채플린, 수요일은 초청 강사, 목요일은 학생 설교자, 금요일은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인도하는 목요일 예배에서 학생들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설교도 준비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성장의 기회를 갖습니다.

2) 성경신학에 기반한 개혁주의,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전수

신학과는 우간다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지역과 아프리카의 교회와 신학계를 이끌어

갈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은 신구약 개론과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선지서, 4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RTC를 통해서 성경신학에 기초한 성경과 신학의 과목들과 해석학을 개혁주의적인 전통과 복음주의의 또 한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3) 유아교육과 예배음악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RTC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는 현대의 여권 신장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의 환경 속에서도 유아들을 전문적 지식과 방식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이수한 졸업생들은 유아원, 초등학교, NGO와 같은 기관들에서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예배음악과

예배음악과는 교회와 선교를 위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배음악과의 학생들은 음악 이론뿐 아니라 성악 연습, 기타와 피아노, 키보드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을 다루고 연주할 수 있는 기량을 습득하고 있다.

확대되는 연장교육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은 지리적, 경제적인 사유로 본교캠퍼스에서 공부하기 힘든 지방의 목회자들과 학생들, 평신도들을 위해 Kisugula의 캠퍼스에서 우간다 전역으로 교육의 혜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 Mbarara, Isingiro, Ibanda TEP

김신환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이 지역의 신학연장 교육 프로그램(Theological Extension Program)은 현지 성공회 교단과의 협력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3개 지역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diploma 과정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본교 캠퍼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Kitukum, Gulu TEP

본교 동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 TEP는 약 30명의 우간다의 북쪽 지역과 남수단의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신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Fort Portal TEP

올해 2020년 3월 초부터 TEP 16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RTC 포트포탈 신학 연장 프로그램에는 주로 현지의 이정식 선교사가 만든 현지 교단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과 실습

1) Practicum

신학과는 졸업을 위해 논문과 더불어 90시간의 프랙티컬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현지 교회의 인턴으로 봉사

하면서 사역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이 현지 nursery에서 반드시 실습하는 것을 학점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에 유아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음악과는 졸업연주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지역 사회 앞에서 학교에서 수업 받고 실습 받았던 기량을 최종 점검 받습니다.

2) 아웃리치 선교(Outreach Mission)



RTC의 학생들에게는 1년에 2번 캠팔라를 떠나 우간다의 외지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웃리치 선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클래스 안에서 배웠던 성경과 신학과 복음을 실제화할 수 있는 생생한 간증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중장기 목표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은 이제 신학대학을 넘어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한 각 분야의 인재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할 기독교종합대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카탈레 캠퍼스 개발 및 이전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은 부나마야의 현 캠퍼스에서 카탈레의 신 캠퍼스로 이전하여 코비드19으로 인한 정부의 봉쇄조치가 해제되면 2021년 9월 학기부터 신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IT 교육의 역량 강화

최근 본교는 최신형의 컴퓨터 30대를 추가함으로 학생들의 IT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배가시켰습니다.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의 학생들은 최상의 컴퓨터 lab에서 IT 교육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RTC는 비대면 수업 진행을 위한 구글 Class 플랫폼을 확보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사들은 Lockdown 기간 동안 이 플랫폼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대학으로의 발전

우간다개혁신학대학은 신학대학에서 우간다와 아프리카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역 주권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독교종합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부설 직업학교도 신설될 것입니다.

RTC가 동아프리카 지역의 교회와 공동체를 변혁시키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개요

RTC는 아프리카에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이며 변화된 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위해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과목들을 제공함으로 충실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RTC를 통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훈련받고 지역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변혁하게 될 것입니다. 우간다와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RTC는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2. 주요 사역

1994년 개교 이후 RTC는 1998년에는 신학과 이외에 음악과가 개설되었고 1999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포체프스트룸 대학교(Potchefstroom University)와 공동으로 신학과에서 신학사와 BA Honors과정을 수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유아교육과가 신설되었고 2007년에는 영어과정(ESL)이 추가되었습니다.

우간다와 케냐,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DR 콩고 등 E. Africa 곳곳의 860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소로티 박신화 선교사



네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리니

하나님께 처음 콜링을 받았을 때,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아주 소실적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 쌓이고 더해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설령 주님 부르시는 그곳이 아프리카 할지라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캄팔라 수도에서 우간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중에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다시 이동해야 할 때는 단번에 순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침묵하셨고 오로지 남편 선교사의 사명만을 따라 온 가족이 이동해야 하는 이 무모한 현실 앞에 땀방울 같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던 것 같다.

이삿짐을 다 싸놓고 캄팔라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날까지도 나는 확답을 얻지 못해 하나님과 긴긴밤 사투를 벌였다. "저는 신랑을 따라 우간다에 온 선교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저에게만 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

"네가 밟는 소로티 땅이 거룩한 땅이니라"

#이동과 약속

소로티에는 "귀한 사람이 비를 몰고 온다"라는 속담이 있다. 농업 중심의 부족사회인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건조하고 뜨거운 소로티에서 비는 생명수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로티로 이사하는 당일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 짐을 늦게 싣고 출발하여 이 무더운 아프리카의 햇볕을 어찌 견디며 갈지 고민했는데 진자를 지나자 이른 단비를 한 번에 짹 뿌려주시고 뜨거운 햇살은 구름 가운데 가려주시며 맑고 화창한 이삿날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음발레를 지나자마자 또다시 세찬 단비를 순식간에 한번 짹 뿌려주시고 뜨거운 햇살은 구름 가운데 가려주시며 맑고 화창한 이삿날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또다시 소로티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부드러운 단비를 살짝 내려주시더니 마무리가 될 즈음 비도 함께 그치고 이른 저녁이 되었다. 여태 소로티를 다니는 동안 이렇게 마음 편하고 시원하게 이동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사하는 날만큼은 너무나도 편하게 소로티로 이동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캄팔라, 그러나 7시간이 넘는 장거리를 이동해 오는 동안 우리 가정 앞에 펼쳐진 세 번의 자연 순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의 행보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6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뤄진 우간다에서 선교사들의 이동은 한 부족의 선교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주셨다.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날 우리 가정의 이동을 매우 귀히 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를 통하여 "팔아, 너의 순종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네가 순종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는 마음의 강한 울림으로 약속하셨다.



#실망과 좌절

수도를 떠나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과 벌이는 긴긴 사투 끝에 분명히 주님은 "네가 밟는 그 소로티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만나는 소로티 땅은 전혀 거룩한 땅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덥고 무진장 건조한 이곳에서 하루하루 내 육신이 메말라 간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로티로 이사하고 첫해는 세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감으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다. 게다가 어린 두 자녀들이 이곳에서 아플 때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심장을 졸였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가장 실망했던 때는, 바로 속고 속이는 현지 분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사역을 해왔다. 이곳에 다 기록하지 못할 수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모른다.

이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는데 무중구라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이분들에게 때로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한 번 더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았다. 그 사랑은 마치 인간 너머에 있는 사랑과 같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늘 그 문제로 넘어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다.

#사역과 감사

그렇게 끊임없이 실망과 좌절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우간다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며 이곳이 진정 거룩한 땅임을 알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5.6에이커의 땅을 매입하게 되고 울타리를 치게 되고 교회와 유치원, 초등학교, 직업훈련, 피아노 음악교 육센터 등 이전부터 꿈꿔왔던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감사하기는, 인제가 부족한 지방 사역에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재능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부족하게 주시고 늘 모자람 있게 주셔서 항상 노력하게 만드셨고 항상 교만하지 않게 하셨으며 항상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도록 이끄셨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좌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였고 때론 건디기 힘들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독수리같이 날개 쳐 오르게 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되어진 것은....

#슬럼프와 열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역을 하다가도 불쑥불쑥 내 의지가 살아 숨 쉬다 슬럼프에 자주 빠지곤 했다.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슬럼프 속에서 왜 많은 전도자들이 다들 전도하다가 도중에 낙심하는지, 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오래 있을수록 처음 열정을 쉽게 잃어버리지도 않게 되었나.

바로 "나의 때에 열매를 보겠다"라는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불꽃 같은 나를 보며 좋은 에너지가 참 많은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너무 앞서갈 때, 나에게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점점 소멸되 갔고 늘 제풀이 꺾여서 슬럼프가 자주 찾아오곤 했다.

#선교는 백년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자이지 거두는 자가 결코 아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때에 이루시게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향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날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뿌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 칭찬하실 터이니 내가 죽어서 없어진 향후 백 년 아프리카 선교지를 기대하며 나의 좋은 에너지로 둔갑한 열심을 죽이고 더이상 슬럼프에 빠지

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천로역정

선교지에 있는 횡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히 '선교사역'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꼭 아프리카였어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 나를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꼭 거쳐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우간다 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철저히 낮아져 이분들을 섬기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게 주어진 구원도 도저히 내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더욱 고백하게 되었다.

또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화의 과정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역들이 멈춰버린 이 시간에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을 가장한 "내 하고 싶은 일"이란 것에 매달려 그동안 사역했음을 깨닫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 먼 나라까지 보내신 것 같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천국 문 앞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답시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많은 사역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 '나'라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역하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한선협 자작시 공모전 참가시(詩)

주제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은 시는 모두 6편이며 번호는 도착순서입니다.
심사위원은 한선협 회원이 될 것이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투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후 작시자의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1

가온누리¹⁾

하늘 너머
생명의 씨앗
흙과 만나 도담 도담 이야기 소리가
온 마음 휘감아 둥개바람 일어
산 너머 바다 건너 꽃씨되어
피어 지고, 지고 피어나
사달²⁾이 온 몸을 적시니
사시랑이³⁾ 되어 볼 수 없는
매마르고 길없는 사막에 피어난
영글어진 꽃 내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니 아롱별되어 훨훨 훨훨
내님의 무한 날개
양어깨에 달아 내 영혼
하늬바람 타고
오늘도 나는
하르르 하르르⁴⁾.

- 1) 무슨 일든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는 순수 우리말
- 2) 대단찮은 사고나 탈
- 3) 가늠고 힘없는 사람
- 4) 종이나 옷감 따위가 매우 보드레한 상태, 더 순수하고자 뭉부랴치는 시인의 마음 닮아 형상화하다.

2

그래도 주 찬양

새벽, 지저귀는 새 소리에 눈 비비고
이불 속 누장부린 오늘 아침
아직은 밖도 나도 캄캄하기만 한데
피조물 생기는 활력 넘치네

어둠, 몸 낮추어 내 숨 편해지고
내면 안 가득 채운 주님 평강
아직은 밖도 나도 변한 게 없는데
창조주 솟시 여전히 들리네

폭풍, 휘몰아치는 세차고 강한 비
꽃도 아르고 새들도 숨어버렸지
두려움 떨쳐 자리를 박차 일으키고
그때를 기억해 활짝 웃고는

기대, 멀리 가까이 들리는 새 소리
곧 밝음을 전해오는 반가운 소식
아름과 고독 이겨낸 새싹 재잘재잘
흙뻘 물 머금고 단단해진 땅

오늘, 생동하는 우주 더 힘차 힘차고
홍적 성숙한 눈부신 세계와 우리
덩달아 무기적 낙심 떨쳐 내던지고
여전히 내 주님 찬양 하여라

눈 잃은 자의 기도

5

주님
캄캄함 속에
한 발을 디딤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몇 분이던 달을 곳을
가물고 거친 논바닥을 밟듯
비틀거리고 베이며
채 열 걸음도 떼기 전에
주저 앉습니다
여태, 내 의지로 산 중 알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만 구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고르고
듣고픈 말만 담고
어디든 자유로이 간 것도
두 다리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볼 수 없는 눈이 되어
낙엽을 삼킨 가을의
빈 공터에 홀로 서서
해질녘 동안 동무들의
메아리로 지팡이삼아
어찌할 바 모르고 펴고 있습니다

눈 끝에 맴쥔 잔상이 질리인듯
왜곡되고 굽은 선으로
판단하고 정직하여
당신이 사랑하신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자의
절박함으로 비오니
고작 몇 그래프 불과한
무계였다 할지라도
눈을 잃고 온 영혼이 텅비어 버리는
절망의 미래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보석같이 닦아주신 눈을
말갈게 다시 닦아
당신이 사랑하시는 곳으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로
핑계치 않고 달려가오리니
주님
뽕혀지는 뿌리를 박으시고
매마른 눈 줄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4

1. 그림에도 보이는 한 가지

모든 것을 가져간 어둠이라지만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봅니다.

절대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소명.
그분의 부르심-

2.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좋습니다.
바람도 솔솔하니 좋은 날이네요.

두 아이가 앞 마당서 뛰놀니다.
별이 잘 도는 저기-
저기 저 자리서 아내가 손짓을 합니다.

화단에는 하얀 장미꽃 세 송이가 피었군요.
작은 허브 나무 여럿도 싱거 있네요.
라벤더와 페퍼민트예요.
그 아래로는 일개미들이 열심히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모든 것이
눈을 감아야 보이는 슬픈 것이 되었습니다.
가야 할 길만 생각하느라
미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부디,
이 어둠의 끝날에는
푸른 하늘 한 번을 올려다 볼 수 있는
눈부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살이기를 빌 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네

3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세상을 기대하고 어제를 마쳤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이상한 날이 찾아왔다.
차라리 어제 더 나았을지 모르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내가 달려갔던 길도 사라졌다.
그렇게 늘어 두었던 이상도 보이지 않는다.
영원할듯한 내 꿈이 영원히 꿈으로 날아버리는 순간 같았다.
나는 어느새 캄캄함 속에 내동댕이쳐진 이정표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

암흑 속의 빛은 작아도 보이는 것인가.
희망을 찾아본다.
살을 더듬어본다.
조금씩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져본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던 세상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세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눈을 씻어봐도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내가 알던 지금까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어두우면 보이지 않던 세상,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던 세상이 허상은 아니었을텐데
눈을 떠도 해매던 그 세상,
안내탄이 없으면 가지 못했던 그 세상이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

보이지 않던 그 속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시력이 사라졌다고 세상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내가 알던 밝한 세상은 빛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추구해야 되는 세상은 빛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이는 속에 없던 세상,
보이지 않던 속에 있었던 세상,
나는 이제 보이는 세상이 사라짐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상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신비한 행복자가 될 것을 노래한다.

더 깊은 세계를
더 넓은 세계를
더 높은 세계를
더 따뜻한 세계를

꿈도 꾸며
그리기도 하며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노래를 불러본다.

무제(쿠미를 방문해서 맞이한 아침)

6

차창에 쏟아지는 폭우로
앞을 볼 수 없어도,
비포장길 흙 먼지에
앞을 볼 수 없어도,
해가 진 어두운 저녁 길에
앞을 볼 수 없어도,
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왔건만...

찬란한 햇살의 밝음이
내 앞에 있어도,
새로운 매일의 삶이
내 앞에 있어도,
따스한 아내의 손 길이
내 앞에 있어도,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이 없이 왔었네.

매일의 해는 여전히 떠오르건만,
매일의 삶은 여전히 되풀이되건만,
매일의 일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건만,
매일의 나는 없고, 나를 잃었네